

상용차·모빌리티 혁신성장 지원단 발족

전북도, 상용차산업 혁신성장사업 기술개발에 도내 기업 참여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컨설팅 지원

전북도가 상용차산업 혁신성장사업 기술개발에 많은 도내 기업 참여를 위한 '상용차·모빌리티 혁신성장 지원단'을 발족했다.

도는 23일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사업의 기술개발사업에 도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차근차근 지원할 수 있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상용차·모빌리티 혁신성장 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1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사업 설명회'에서 발표한 기술개발 과제 수주를 위한 전반적인 컨설팅 지원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도내의 산학연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상용차·모빌리티 혁신성장 지원단'은 산업부의 올해 사업공고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지원단은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사전컨설팅 지원체계 확립,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전략컨설팅, 미래 모빌리티 기술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과제 발굴 등 전주기적인 기술개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난 20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상용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을 위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공고를 시행했다.

향후 5년간 1,621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상용차부품 고도화 및 선제적 시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Co-Lab. 센터, 테크비즈프라이즈 등 인프라 구축과 기업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올해 공고된 사업은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사업 1개 과제와 상용차산업 접프-업 융복합 기술개발 6개 과제로, 사업 공고일은 다음달 20일까지 32일이며, 산업부는 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할 후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과제별 기술제안서 및 공고문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의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고자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문의하면 된다.

도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우려곡절이 많았다. 전북 경제의 대표 주자인 자동차산업이 친환경, 미래형 산업생태계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에 도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은 "도내 기업이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 생태계로 향하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단 운영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사업에 많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도선관위, "거소·선상투표신고 하세요"

24~28일까지 신고하면 병원·자택 등서 투표 가능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

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합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판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에도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27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적극 추진

전북도는 공유를 통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지식, 재능 등의 여러 분야의 자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합리적인 소비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의 경제를 뜻한다.

지난 2019년부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주민의 공유 활동을 지원해 개인주의와 사회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유희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했다.

공모는 3월 20일부터 오는 4월 9일(20일)까지 시군 공유담당 부서에 접수하며, 공유를 통해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기업이면 응모 가능하다.

시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공유 사업을 발굴해 적격성 검토 및 현장 실사를 통해 2개소 단체, 기업을 도에 추천한다.

도에서는 심사위원회를 5명 이내로 구성하여 공유촉진효과, 지역자원 활용, 사업수행능력, 자부담 비율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4월 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역의 유희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 모델을 창출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 장승벌 보존하라' 해창 장승벌 보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종교·시민·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전북도의회에서 새만금 장승벌 보존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전북도, 개인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 위해 지방세 대리인 무료 지원

전북도는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1천만원 이하 개인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세무대리인은 부부합산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승용자동차·회원권 보유재산이 5억 원 이하인 1천만원 이하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 전적부심사 청구 시 청구인을 대리하여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업무 지원한다.

다만, 개인 영세납세자라 하더라도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구 금지 대

상이거나 명단 공개 대상자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 전문가 8명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세무대리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 관련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 앞으로 2년간 도내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

는 가족증명서 및 소득금액확인서와 함께 '전라북도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도내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무대리인 지정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도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개인 영세납세자들은 무료 세무대리인을 이용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성 기자

돈움기업 육성사업 본격 경쟁 돌입

전북도, 20개사 모집에 총 59개사 접수하며 3:1 경쟁률 기록

전북도는 2020년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돈움기업 육성사업이 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접수를 마감하고 현장평가 등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돈움기업 육성사업은 중소기업들의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및 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의 초석을 다지는 일환으로 시작한 전라북도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중 첫 단계 지원사업으로, 창업 이후 우수한 기술력과 미래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성장기 기대되는 도내 중소기업 중 매출액 1억이상 10억미만 기업을 성장사다리 지원체제로 유입시켜 집중 지원을 통해 도약기업, 선도기업으로 진출시킨다는 목표로 2020년 시작한 신규사업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한 달여간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20개사 모집에 총 59개사가 참여하며 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진성 기자

도와 (재)전북도경제통산진흥원은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를 마치는 대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기업현황과 기술·경영상태 등을 현장조사하고 대표자 인터뷰 심사를 통해 참여의지, 성장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돈움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은 기업진단 및 성장전략 컨설팅, R&D기술개발 지원, 기술사업화 맞춤형 지원, 성장 스케일업 등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전북도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지원사업은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에 기초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과 중앙정부 기업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전북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